광주 빈집 정비사업 헛손질

활용 제대로 못하고 관리 부실… 민원만 늘어

60% 빈땅 방치

광주 각 자치구가 수 억원을 들여 공·폐가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철거 후 관리 부실로 되레 민원만 늘고 있다. 공·폐가를 치운 공터 활용을 위한 예산과 아이디어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30일 광주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200여 동의 공·폐가가 철거됐으나 집터의 60% 이상이 나대지로 방치돼 있고 극히 일부만 텃밭이나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주택부지가 쉼터나 쌈지공원, 주차장 등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는 곳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라는 정비사업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철거 후 부지 활용도가 낮고 관리마저 부실해 또 다른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철거 전후 소유주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점 때문에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도심재생 효과를 극대화 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 광주시 북구 양산동의 한 공가의 경우 올해 철거작업을 마쳤지만 집터에 대한 특별한 사용처를 정하지 못해 쓰레기장이 되고 있다.

북구청 관계자는 "공·폐가의 소유주가 관할 지역에 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허락 없이는 쉼터나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수도 없어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 때문에 적잖은 예산(1동 평균 700여만원)까지 들여 이 사업을 지속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무상으로 진행되는 정비작업이 재개발 등을 염두에 두고 땅값을 높이는 꼼수로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이행식 광주시 도시재생과 실무관은 "공·폐가 정비작업은 철거 그 자체로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환경개선의 효과가 있다"며 "소유주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공·폐가 부지를 쉼터나 텃밭, 주차장 등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광주지역 공·폐가 총 1946동 중 176동(▲동구 26 ▲서구 21 ▲남구 46 ▲북구 29 ▲광산구 54)을 정비(철거)했고 올해는 3억 8500만원을 확보해 61동에 대해 정비 중에 있다.

또 추가로 정비구역(주거 환경개선·재개발·재건축지역) 내 공·폐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430동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유형별로 맞춤형 정비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지난해 철거된 광주시 동구 지산2동 빈집 터를 주민들이 텃밭으로 일구고 있지만 인근에서 내다버린 쓰레기가 쌓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서해 독성 해파리 습격

부안 해수욕장 등 피해 속출… 피서객 주의

서해 바닷물의 온도 상승으로 독성 해파리떼가 기승을 부려 피서객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군산해양경찰은 "전북 도내 일부 해수욕장의 해변까지 밀려온 독성 노무라 입깃 해파리(Nomura's jellyfish)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30일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29일 부안군 한 해수욕장에서 여중생 서모(15)양 등 피서객 50여명이 해파리에 쏘인후 고통을 호소해 현장과 보건소 등지에서 응급조치를 받았으며, 서남해안 다른 해수욕장에서도 해파리 피해가 예상돼 주의가 요망된다.

이들은 "물놀이를 하던 중 뭔가 다리쪽을 스치고 지나간 후 빨갛게 부어오르며 통증을 느꼈다"고 말했다.

노무라 입깃 해파리는 5월부터 우리나라 인근해역에서 발견되는데 무더워지는 7월~9월에 개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촉수의 독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가벼운 상처를 입힌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오늘 오후 6시부터 '빛고을로' 전면개통

광주 상무지구와 첨단지구, 담양을 연결하는 '빛고을로'(동림IC~북광주IC 구간 도로)가 전면 개통된다.

광주시는 동림IC에서 신용교차로에 이르는 빛고을로 연장노선 1.8㎞ 구간의 공사를 완료, 31일 오후 6시부터 빛고을로 전 구간을 전면 개통한다고 30일 밝혔다.

동림IC에서 북광주IC에 이르는 빛고을로 총 연장 7.62㎞ 구간 중 1.8㎞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지난 1월 개통됐었다.

빛고을로 연장 노선의 개통으로 북광주IC에서 상무지구 등 도심으로 진입 시 첨단지구, 일곡 등으로 우회하는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장흥 '魔의 도로' 고친다

도로교통공단 전남본부

도로교통공단 전남본부가 잘못된 도로 구조로 교통 사고 사망자가 잇따르고 있는 장흥군 장흥읍 사안리 연동마을〈본보 7월 30일자 7면〉 앞 도로에 대해 전면적인 점검과 개선에 나선다.

도로교통공단은 31일 오전 연동마을에서 도로관리사업소, 지역경찰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근 실시한 교통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선형개선, 과속방지턱 설치, 미끄럼 방지 포장, 경광등 설치 등의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반영해 주민들의 불편함을 없애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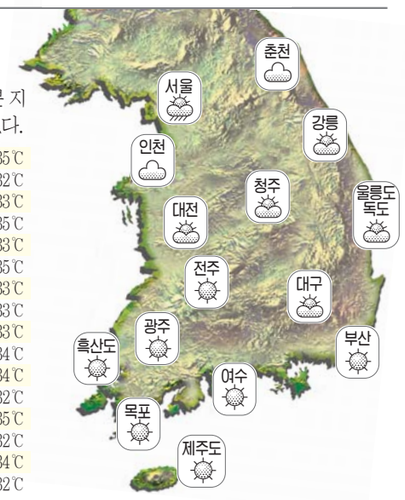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5시 41분 / 해짐 19시 37분 — 달뜸 17시 57분 / 달짐 03시 23분

오늘도 폭염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지겠다.

광 주	맑음	25/35℃
목 포	맑음	25/32℃
여 수	맑음	25/33℃
나 주	맑음	24/35℃
완 도	맑음	25/33℃
구 례	맑음	24/35℃
강 진	맑음	25/33℃
해 남	맑음	25/33℃
장 흥	맑음	24/33℃
순 천	맑음	24/34℃
영 광	맑음	25/34℃
진 도	맑음	25/32℃
전 주	맑음	24/35℃
군 산	맑음	25/32℃
남 원	맑음	23/34℃
흑산도	맑음	25/32℃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동~남	0.5m
먼바다	남동~남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0.5m
먼바다	남동~남	0.5~1.0m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피부질환지수: 경고 / 매우높음 / 높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동~남	0.5m
먼바다	남동~남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0.5~1.0m
먼바다	동~남동	0.5~1.5m

	밀물	썰물
목포	00:31 12:30	06:03 18:00
여수	07:31 20:21	01:39 13:33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8/1(수)	2(목)	3(금)	4(토)	5(일)	6(월)
날 씨						
최저/최고	25/35	26/32	26/32	25/34	25/34	26/33

태풍 '담레이' 폭염 기세 꺾을까?

중급 태풍 예상… 2일 남해안 영향권

최근 북태평양에서 잇따라 태풍이 발생해 무더위가 한풀 꺾일 지 기대된다.

30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일본 도쿄 남동쪽 약 1300㎞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제 10호 태풍 '담레이(DAMREY)'가 한반도 서쪽 해상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

이날 오후 3시 현재 시속 13㎞의 비교적 느린 속도로 전진하고 있는 담레이는 현재 최대풍속 초속 19m, 강풍반경 200㎞의 '꼬마 태풍'이다.

내달 1일 오후에는 최대풍속 27m, 강풍반경 250㎞의 중급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담레이가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세력이 점차 강해지면서 1일 오후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시작으로 2~3일 남해상에 직접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